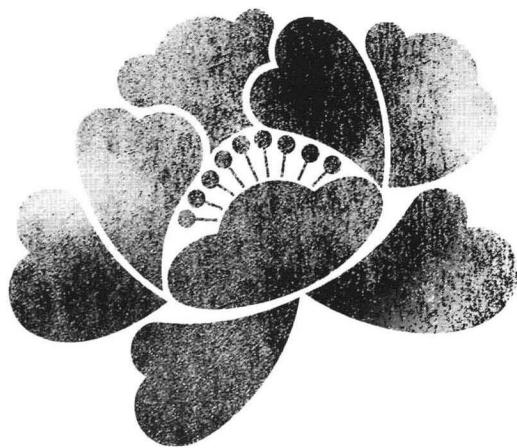


새해를 맞기 위해 멀리 남해의 여수 오동도梧桐島를 찾아왔습니다. 새해 첫날은 아직 며칠이 남았지만 이미 들떠 버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동도에 동백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오래인데 굳이 새해 첫날을 기다리기는 너무 애가 타는 노릇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동백꽃을 보는 것을 새해맞이의 의식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과 연초를 전후하여 동백꽃이 피는 남도의 여러 지역을 찾아 나서곤 하던 것이 어느덧 빼놓을 수 없는 계절의 병통病痛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의 동백꽃은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줄곧 피고 진다는데, 올해는 날이 따뜻하여 어느 해보다도 빨리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의 해풍과 파도소리 속에서 아름드리가 된 동백숲에는 지금 진초록 잎새 사이사이마다 수많은 동백꽃들이 선홍빛으로 피어 있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에 통째로 떨어져 선혈처럼 널려 있는 꽃들. 그 처연한 낙화들을 보고 있자니 까닭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짐짓 무심한 듯 떨어진 꽃 한 송이 주워들고 노란 꽃술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동백꽃은 오래 전부터 문사들이 사랑하던 꽃이었습니다. 사군자란 개념이 자리 잡기 이전에 이미 동백꽃은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피어나는 그 고결한 절의가 송백이나 매화보다 낫다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격조는
절로
높고
풍류는
짜랄
바가
없으니... 동백꽃



기태완

桃李雖天天 복사꽃 오얏꽃이 비록 곱고 무성하지만
 浮花難可恃 그 경박한 꽃은 믿기가 어렵고
 松柏無嬌顏 소나무 측백나무는 고운 안색이 없어
 所貴耐寒耳 귀한 비는 다만 추위를 이겨내는 것뿐일세
 此木有好花 동백은 어여쁜 꽃이 있으면서
 亦能開雪裏 또한 능히 눈 속에서 피어나네
 細思勝於栢 깊이 생각건대 측백보다 나으니
 冬栢名非是 동백(겨울 측백나무)이란 이름은 마땅하지 않네

이규보李奎報 <동백화冬栢花>

고려 이규보의 <동백화>입니다. 복사꽃과 오얏꽃이 비록 화사하고 무성하지만 경박하게 피었다가 쉽게 저버리는 그 꽃들을 믿을 수가 없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고운 꽃을 피우지 않으니 다만 추위를 이겨내는 절의만이 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동백나무는 어여쁜 꽃을 눈 속에서 피워내어 고운 안색과 절의를 겸비하고 있으니 측백나무보다 단연 윗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즉 겨울 측백나무라는 의미의 동백이란 이름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선 초 신숙주는 <설중동백雪中冬栢>이란 시에서 “대나무와 매화도 마땅히 양보해야 할 것이니, 눈 속에 꽃과 잎의 비취빛과 붉은 빛이 섞여 있네(竹友梅兄應互讓, 雪中花葉翠交紅)”라고 하여 동백꽃의 절의가 대나무와 매화보다 낫다고 칭송하였고, 성삼문 또한 <반개산다半開山茶>라는 시에서 “고결하기는 매화와 나란하고, 어여쁘기는 그보다 낫네. 이 꽃이 우리 나라에 많으니, (우리 나라를)마땅히 봉래蓬萊라고 불러야 하리(高潔梅兄行, 嬋娟或過哉, 此花多我國, 宜是號蓬萊)”라고 읊었습니다. 매화처럼 고결하면서 그보다 아름다운 동백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동백을 신선의 꽃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歲寒和氣獨胚胎 세한의 온화한기운 속에 홀로 배태되어
 却殿羣芳恰半開 모든꽃들진 후에 흠족히 반쯤 피어났네
 格調自高霜始見 격조는 절로 높아서리 내린 후에 비로소 보이고
 風流無伴雪同來 풍류는 짝할 바가 없는데 눈과 함께 찾아왔네
 苦牽花惱巡千匝 꽃에 몹시 이끌리어 천 번이나 맴돌고
 生怕香殘夢幾回 향기 사라질까 근심하여 몇 번이나 꿈꾸었던가
 苦憶畫堂屋上看 애타게 추억하며 화당의 옥상을 바라보니
 數枝斜影竝紅梅 몇 가지에 비킨 꽃 그림자 붉은 매화와 함께 있네

서거정徐居正 <산다화山茶花>

서거정의 <산다화>입니다. 산다화는 동백꽃의 다른 이름입니다. 동백이 차나무와 사춘지간이라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지요. 서거정 역시 동백꽃의 높은 격조와 짝할 바 없는 풍류에 사로잡힌 자신의 심회를 고백하고 있으니, 지금 오동도 동백숲 속을 홀로 거니는 나그네의 마음이 또한 그와 같습니다.

이 글을 쓴 기태완은 중앙대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국문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한국한문학 전공)했다. 현재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홍익대 겸임교수로 있다. 저서에 《黃梅泉詩研究》, 역서에 《東詩話》《精言妙選》《據梧齋集》《高宗辛丑儀軌》 등이 있다.



주워든 동백꽃을 거꾸로 쥐고 왼쪽 손바닥 위에 힘껏 뿌리쳐 봅니다. 꽃 속에서 맑은 액체 두어 방울이 손바닥 위에 맺혀 나옵니다. 달착지근한 맛, 바로 꿀맛입니다. 동백꽃에는 꿀이 많아 어린 시절에는 밀짚 대궁으로 즐겨 그 꿀을 빨아먹곤 하였습니다. 동백꽃의 꿀은 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에 곤충들이 있을 리 없지요. 이 꿀은 바로 새들을 위한 것입니다. 새들 중에서도 동박새가 전문 채취꾼입니다. 비취빛의 조그만 동박새는 박각시처럼 날아다니며 동백꽃의 노란 꽃술에 부리를 박고 꿀을 빨아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곤줄박이나 개고마리 같은 새들도 동백꽃의 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꽃의 옆구리나 밑동을 부리로 찍어 구멍을 뚫고 꿀을 먹기 때문에 꽃이 망가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동백 열매는 보통 호도만한데, 큰 것은 무화과만하기도 합니다. 꽃이 피고 이듬해 가을이면 이 열매들의 붉은 과육 속에서 은행알만한 까만 씨앗 서너 알이 터져 나오는데, 어떤 놈들은 새로 핀 꽃들과 함께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여인들이 머릿기름으로 사용하였지요. 그래서 동백이 풍년이 들면 사내들은 아낙들이 바람이 날까보아 걱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동백꽃의 종류는 꽃의 크기와 색깔, 그리고 꽃잎의 숫자 및 잎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격물론格物論》에 “산다화는 몇 가지 품종이 있는데 보주다寶珠茶·석류다石榴茶·해류다海榴茶는 작은 꽃이 피고, 척촉다躑躅茶·말리다茉莉茶·궁분다宮粉茶·관주다串朱茶는 모두 분홍색이다. 일념홍一捻紅과 조전홍照殿紅은 잎이 각각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강희안姜希顔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심는 것은 다만 네 품종이다. 단엽의 붉은 꽃이 눈 속에서 피어나는 것을 세속에서 동백이라 부르는데 곧 《격물론》에서 말하는 일념홍이다. 또 단엽의 흰 꽃이 봄에 비로소 피는 것을 세속에서는 춘백春栢이라 부르는데, 즉 《격물론》에서 말하는 궁분다 같은 것이다. 한양에서 기르는 천엽동백千葉冬栢은 《격물론》에서 말하는 석류다 같은 것이다. 또한 천엽다 가운데 꽃 한가운데에 노란 꽃술이 붙어 있는 것은 이른바 보주다이다. 대저 천엽다는 잎이 두텁고 진한 녹색이고, 꽃술은 모두 작은 꽃을 이루므로, 호사가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나 보주다의 빼어난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단엽다는 잎의 색이 옅은 황록색으로 좋지 않다. 단엽동백과 춘백은 남쪽의 섬들에서 잘 자라는데 남쪽 사람들은 이들을 베어내어 땀감으로 사용하고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짜서 머릿기름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강희안은 겹꽃이 좋다고 하였으나 내가 애호하는 것은 단엽의 동백입니다. 바로 오동도의 동백꽃이 그러한데, 샛노란 꽃술의 선홍색 꽃들이 눈 속에 피어날 때는 그 고결하고 처연한 자태가 더욱 눈이 부십니다. 동백이 사군자에 들지 못한 것은 진정 슬픈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가지고 가서 화분에 싹을 틔워볼 작정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백 씨앗 열댓 알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니 오동도 서편 돌산 너머로 동백꽃빛 같은 저녁 놀이 하늘과 바다를 선홍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또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세월이 서럽다지만 마땅히 저 눈 속에 다시 피어날 새 날들을 기약해야겠지요. 새해에는 도모하는 일마다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멀리서 상서로운 동백꽃 향기를 동봉합니다. ❀

